

투데이

현대차 율촌산단 개발계약 해지 위약금 670억

“지역산단 개발·활성화에만 사용”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구 삭제 조례안 통과

현대자동차(주)가 율촌 제1산업단지 개발계약을 해지하고 광양만권경제 자유구역청에 위약금으로 지급한 670억 원을 지역산단 개발 및 활성화에 사용토록 하는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애초 논란이 됐던 내용 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는 문구가 삭제됐으며, 지역 산단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사용 범위가 제한됐다.

전남도의회는 26일 제262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관광문화위원회를

열고 현대차와의 계약 해지를 발생한 위약금 670억 원의 사용 범위를 광양만권 및 전남 지역산단 개발과 활성화 등에 사용하기 위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및 지역개발 지원기금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본회의로 넘겼다.

이용재(광양1·민주) 의원이 수정 발의해 통과된 조례안은 기금 사용 목적을 광양만권 및 전남 지역 일반산업단지 조성·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분명히 한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수정 조례안이 규정한 기금 사용 용도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일반산업단지 조성·관리 및 활성화 사업 ▲일반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 ▲그 밖에 일반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3가지다.

전남도는 애초 지난 6월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기금을 산단 조성·활성화, 교육기관 건립, 장학금 지원사업 외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기금 사용 용도가 광범위하고, F1 대회에까지 전용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면서 지난 6월 조례안 처리가 지나 2005년 12월 계약을 해지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주암댐 원수 광주천 공급 기공

‘주암댐 원수 광주천 공급 기공식’이 26일 강운태 광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천 광암교 둑치에서 열렸다. 광주시는 사업비 93억 원을 들여 남구 덕남정수장~동구 지원동 광주천까지 5.5km에 걸쳐 1천mm 관로를 끌어 내년부터 매일 1급수인 주암댐 물 10만t를 공급하게 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재정자립도 끌찌 복지수요는 최고

전남도 복지예산에 허리 훤다

100만달러 지불 F1 메인스폰서는 포스코·SK윤활유

김옥기 도의원 자료 공개

F1(포뮬러원) 코리아 그랑프리를 위해 100만 달러를 지불하고 매 인스폰서로 참여한 기업은 어디일까. 1인당 사용료가 260만원에 이르는 기업부스를 구입, 귀빈 마케팅에 활용하는 기업은 몇 곳이나 될까.

김옥기(나주2·민주) 전남도의회 의원이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F1대회 조직위원회의 제출자료를 공개했다.

우선, 100만달러를 지급하고 대회 메인스폰서십 참여를 확정한 기업은 포스코와 SK윤활유로 나타났다.

이들 두 기업은 ▲서킷 트랙 펜스 광고(10개 내외) ▲서킷 무료 이용권(1일) ▲대회 홈페이지를 통한 배너 광고 제공 ▲대회 입장권 할인 구매권리를 등을 제공받으며 자사 광고에 F1 대회를 활용, 별도 프로모션을 벌일 수 있다. 이를 기업들은 또 국내외 TV 방송 및 인쇄매체, 온

라인을 통해 F1을 활용할 수 있어 대회 홍보 효과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7개 기업(코엔스에너지·대우 조선해양·페라리·MK·호남석유화학·아주개파탈·GL시스템)은 1인당 사용료가 260만원에 이르는 기업부스(Corporate Suite) 구매를 확정했다. 이들 기업이 기업부스를 구매하는데 지불한 비용은 3억 9800만원이다.

9개 기업은 기업부스 구매 약정

을 체결한 상태다. LG디스플레이·더클래스 효성·GS칼텍스·IBK기업은행·현대삼호중공업·KDB산업은행·대우증권·한국가스공사·삼성증권 등으로, 구매 약정 금액은 총 6억2400만원이다.

김 의원은 “F1 대회가 세계 최대의 스포츠산업인 만큼 코리아 그랑프리도 많은 기업들이 참여, 국내외의 글로벌 비즈니스 창구 역할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F1 반대단체, 차지사 업무상 배임 고발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F1(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유치 및 개최와 관련,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전남지역 정당과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F1중단 범도민대책위원회’는 26일 박 차지사 포함한 F1대회 관계자 7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고발장에서 “F1 대회는 전남도 예산 상황에선 무리한 것이었으며 결국 지난해 962억원의 적자를 냈다”면서 “감사원 감사 결과 사전타

F1 경주장 인수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전남도의회가 26일 F1 경주장 인수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수립에 관한 건’을 표결 과정에 통과시켰다.

대책위는 또 “전남도는 자치조건에 맞지 않는 자격 미달 민간 기업을 핵심 사업 파트너로 선정하고 과도하게 비싼 도급률로 경주장 공사를 진행해 2700여억원의 추가 비용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F1 대회를 계속하면 2016년 전남도 재정부담이 총 1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감사원 감사 결과도 인용했다.

이날 상임위에서는 의결 전 F1경주

장 인수의 적절성에 대해 집행부와 강한 논쟁을 벌였다. 강성희(목포1·민주) 의원은 “1980억원에 이르는 지방재벌 행사는 사전에 도의회 승인을 받지 않는 SK건설사의 풀옵션 행사에 따른 비용 763억과 추가공사비 349억 포함돼 있는데 이렇게 어물쩍 포함시키면 되느냐”고 따졌다.

한편, 도의회는 27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를 열고 경주장 인수를 위한 마지막 관문인 1980억원의 채권 발행을 위한 ‘2011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도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전북(33.3%), 광주(29.1%) 다음으로 높았다.

특히 전남지역에서 사회복지가 필요한 수요자는 모두 50만8000여명으로 도내 전체 인구대비 복지수요자 비율이 31.3%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반면, 전남의 재정자립도는 20%

로 전국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어

열악한 재정 형편을 감안하면 비중이

높은 복지예산이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도부는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전북(33.3%), 광주(29.1%) 다음으로 높았다.

특히 전남지역에서 사회복지가 필요

한 수요자는 모두 50만8000여명으

로 도내 전체 인구대비 복지수요자 비

율이 31.3%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반면, 전남의 재정자립도는 20%

로 전국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어

열악한 재정 형편을 감안하면 비중이

높은 복지예산이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도부는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전북(33.3%), 광주(29.1%) 다음으로 높았다.

특히 전남지역에서 사회복지가 필요

한 수요자는 모두 50만8000여명으

로 도내 전체 인구대비 복지수요자 비

율이 31.3%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반면, 전남의 재정자립도는 20%

로 전국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어

열악한 재정 형편을 감안하면 비중이

높은 복지예산이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산사태 위험 전남 가장 취약

전남지역이 전국에서 산사태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26일 배포한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산림청 산하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사태 위험지도에 의하면 전국 16개 시도별 산사태 1등급 지역은 29만4000ha로 이중 전남이 6만778ha로 산사태 발생 위험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경북이 6만93ha로 2위, 경남이 5만343ha, 강원 2만500ha로 뒤를 이었다.

전남에서는 여수시가 1만346ha로

위험지역이 가장 넓었고 순천 8347ha, 해남 7245ha, 곡성 4196ha 등이

있었다.

/박지연기자 jkpark@

광주 시내버스~인근 군내버스 환승 할인 검토

광주 시내버스와 인근 전남 기초자치 단체의 농어촌버스(옛 군내버스) 간 환승 혜택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시내버스와 나주시, 화순군, 담양군, 장성군, 합동군 등 인근 기초자치단체 농어촌버스 간 환승 혜택 도입이 필요

한다는 입장을 기자에게 제기하고 있다.

광주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따라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지하철 간 무료 환승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시내버스~농어촌버스 간 환승 혜택은 주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의 ‘베드타운’ 역

할하는 나주시와 화순군 등은 농어촌버스 환승 혜택 도입을 위해 농어촌버스와 광주 시내버스 간 환승 할인 제도 도입을 광주시에 요구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역 대중교통 일원화 차원에서 광주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간 환승 혜택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내년 용역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혜택범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남 기초자체별 농어촌버스의

광주 운행 실태를 보면, 나주 7개 노선

126대, 화순 4개 노선 53대 등 총 26개 노선 238대가 1일 총 1321회를 운행하고 있다.

남성 성기능 강화제

본제품은 왕래, 복분자, 구기자, 갈근 등 20여 가지의 한약재로 제조하였으며, 특

히 왕라는 허브의 일종으로 자양강장역할을 하여 다미아나 혈관과 호르몬계의 도움이 된다. 단백질을 저장하는 힘을 돋구어 근육을 강하게 해준다는 데 유익합니다.

현재 전남 지역에서는 여수시가 1만346ha로 위험지역이 가장 넓었고 순천 8347ha, 해남 7245ha, 곡성 4196ha 등이

있었다.

/박지연기자 jkpark@

설취방법 및 제품특징

● 평소에 복기는 되나 지속성이 없거나 조류가 있는 분들은 성관계 전 약 2-3시간전에 1정을 섭취하면 1~5일까지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 복기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분들은 1일 1정을 3-7일 정도를 연속으로 섭취하시면 복기가 잘됩니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직접 드셔보시고 확인하세요.

게임과몰입 상담치료센터(지역센터) 공모

게임문화재단에서는 〈게임과몰입 상담치료센터〉를 운영할 전문 기관

(지역별 각 1개)

- 대상 : 영남 및 호남 지역 소재 공공 또는 민간 기관

(지역별 각 1개)

- 제안서 접수 : 2011. 10. 4. ~ 2011. 10. 14.

관련 상세 내용과 제안서 양식은 게임문화재단 홈페이지(www.gameculture.or.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9. 27.

게임문화재단 이사장

게임문화재단

50년 전통·대를 잇는 한의원

잇몸병 한약 2집

붓고 시리고 애리고 피날때

북경당 한의원
대인시장 한미쇼핑 맞은편
한의학 박사 박상준

전화 227~7575
이 이 치료 치료